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6.9.21~2016.9.2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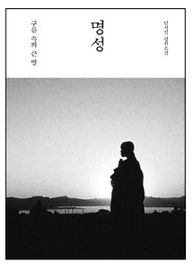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바람불면 다시오리라-소설 법정	백금남	샘앤파커스
2	틱낫한기도의힘	틱낫한	불광출판사
3	참선이란무엇인가	진제대선사	매일경제신문사
4	돌이키는힘(치유하는금강경읽기)	서광	모과나무
5	날마다 새날-불교 명절에 담긴 수행이야기	법륜	정토
6	부처님말씀 따라쓰기	불교방송	비단길
7	깨달음과역사(개정증보판)	현응	불광출판사
8	나를 생각하는 자가 누구냐(만공법어)	만공	비움과소통
9	그녀는다시태어나지않기로 했다	조민기	㈜조계종출판사
10	어느수학자가본기이한 세상-조합	강병균	살림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한국 비구니계의 큰 별, 명성 스님 소설로

강미농의 금강경 강의

남지심 지음 | 불광 펴냄 | 1만 7천원



이 책은 청도 운문사를 한국의 대표 비구니 교육 도량으로 일궈낸 명성 스님 일대기를 담은 소설이다.

명성 스님〈사진〉은 폐허와 다름없던 운문사에 와서 40여 년간 운문사 강원을 세계에 드러내도 손색이 없는 운문승가대학으로 탈바꿈시켰다. 또한 선원, 율원을 갖춘 대가람으로 일으키기까지 혼신의 힘을 쏟았다. 그 힘겹고 드라마틱한 여정을 있는 그대로 작가가 섬세한 필체로 그려냈다.

비구니 교단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비구니의 계맥과 명성 스님이 일군 운문사에 대한 찬사가 잇달은다. 명성 스님의 유발상좌로 30여 년 스님을 가까이서 바라본 〈우담바라〉의 남지심 작가가 비구니계의 큰 스승 명성 스님의 발자취를 평전소설로 꾸몄다. 스님이 생존해 계시고, 책 속에 생을 정리해 놓은 자료들이 많아서 평전 쪽에 가깝다. 이 책은 한국 비구니사를 연구하는 데 활용해도 큰 도움이 될 만하다.

〈명성〉은 스님의 수행자, 교육자, 행정가, 지도자로서의 다양한 면모를 조명했다. 그러나 단순히 명성 스님의 개인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스님의 생 자체가 한국 근현대 불교사의 산증인으로서 한국 비구니 역사를 말하기 때문이다.

이 책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운문사 학인들의 생활 모습을 담은 것이다. 먹거리 해결을 위해 농사짓던 이야기, 사교반 집단 탈출 사건, 감 서리 갔다가 사단이 난 이야기, 간담을 서늘케 한 화재 사건 등 학인들과의 재미있는 일화들은 책 장을 넘기는 내내 절로 웃음 짓게 한다. 매사에 철두철미한 명성 스님이지만 학인들을 포근히 감싸주는 어머니 같은 모습은 가슴 뭉클한 감동으로 전해온다. 이외에도 명성 스님의 수행 이야기에는 각 사찰의 창건 설화, 관세음보살 전생 이야기, 스님들의 일화 등이 녹아 있어 읽을거리가 다양하고 흥미롭다.



비구니 승가 교육에 새 바람 일으켜

이부승 제도 복원, 비구니사에 한 획

2007년 '탁월한 불교 여성상' 수상

1930년 경북 상주서 출생한 명성 스님은 1952년 합천 해인사 국일암서 선행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23세 되던 해 부친인 관응 스님이 출가의 길을 권했다. 관응 스님은 유식학의 대가로 당대 최고의 강백이었고, 최초로 무문관서 6년간 수행을 마친 선승으로 존경받았다.

1970년 40세 때 명성 스님이 운문사 강원에 강주로 왔을 당시만 해도 강원 교육은 서당에서 훈장이 가르치는 방법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명성 스님은 전형적인 주입식 교육의 틀을 깨고 모든 수업을 논강식 교육 방법으로 바꾸었다. 또한 절집 공부만으로는 안 된다고 여기고 외학(外典)과의 연계성을 강조했다.

미술, 외국어, 심리학, 철학, 유학, 다도, 꽃꽂이, 피아노, 서예 등을 교과목에 넣었다. 그 당시 경상북도 산골서 이런 교육을 한다는 것은 시대를 앞서 간 획기적인 일이었다. 절에 들어오면 여성성을 제거하고 남성을 닮은 중성이기를 강요한 시절에 명성 스님은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부드러움을 살려 포교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승가 교육 현장에 신선한 충격이었다.

명성 스님은 비구와 비구니는 다 같은 부처님 제자로 그 위상이 대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비구니가 비구니로부터 전강을 받는 전통을 만들었다. 1983년 명성 스님은 평소 존경한 화산당 수옥 스님에게 법제자로 위패 건당 하면서 자신의 뿌리를 만들었다. 수옥 스님은 금룡 스님, 혜옥 스님과 함께 근대의 3대 비구니 강백 중 한 분이다. 이후 1985년 두 제자 흥륜, 일진 스님에게 전강을 함으로써 기둥을 만든 것이다. 이 전강 식은 비구니 손으로 역사의 획을 긋는 의미 있는 사건으로 비구니사에 기록됐다. 비구니 강사가 배출돼 비구니를 직접 가르치는 여법한 이부승 제도가 되살아났으니, 끊어졌던 강맥을 복원시킨 명성 스님의 생은 그래서 더욱 빛난다.

비구니 위상이 높아지자 종단서도 비구니가 비구니에게 직접 계를 주는 별소 계단을 만들었다. 2001년부터 다시 구족계 별소 계단이 만들어져, 이제 비구니스님은 비구스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국 불교 교단의 한 축을 감당하게 됐다. 그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비구니스님들의 노고가 있었고, 그 중심에는 명성 스님이 존재했다.

스님은 자로 잰 듯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엄하게 교육하는 한편, 허물을 다 덮어주는 포근한 어머니가 돼 주었다. 그래서 학인들 마음속에 명성 스님은 관세음보살처럼 자리한다.

명성 스님은 육군사관학교서 사경 법회를 주관하고, 논산훈련소 군법당서 전계사로 3,500명의 현역 군인들에게 계를 주는 수계 의식을 치렀다. 비구니스님이 전계사가 되어 수천 명의 군인들에게 계를 준 것은 명성 스님이 처음이었다. 이는 군포교의 이정표가 되었다. 스님은 지금도 수계 법회를 지속적으로 후원한다. 명성 스님은 '법계장학회'와 '법륜비구니장학회'를 만들어 불교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명성 스님은 2007년 조계종 명사 법계에 품서돼 불교계의 큰 어른으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UN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탁월한 불교 여성상'(OWBA)을 수상하는 등 세계 불교계의 지도자로 존경받고 있다.

남지심 작가는 말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 존경할 수 있는 분을 만나는 일이라고. 명성 스님을 만난 남 작가는 그래서 행복하다고 말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내가 행복해야 그대가 행복하다"

길 끝나는 곳에 길이 있다

정찬주 지음 | 황금물고기 펴냄 | 1만 4천원



"세상의 모든 생명은 한 뿌리다. 나와 이웃은 한 뿌리의 이파리들이다. 한 이파리가 불행하면 다른 이파리도 불행하게 된다. 이것이 내가 행복해야 할 이유이다. 내 삶이 행복해야 더불어 이웃의 삶도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서울생활을 청산하고 남도 산중으로 훌쩍 떠난 지 16년째인 정찬주 작가〈사진〉가 고립을 자처해 외로움과 직면하고 자연과 소통하며 살아온 날들이 고스란히 담긴 산중일기 속에서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에 대해 사색한다. 그래서 저자의 글들은 잠언 같이 사유하게 만들어 준다.

가령 이렇다. "우리가 짜증을 내거나 부담스러워할 때는 분명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 순간이다. 이럴 때 문제 해결 방식은 아주 간단하다. 집착하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면, 원인을 제거해 버리면 상황이 종료되는 것이다."

작가와 인연 맺은 이들, 그리고 산방을 다녀간 법정스님, 박완서 · 최인호 · 정채봉 작가 그리고 이웃마을 농부에 이르기까지 저자가 머무는 전남 화순의 이불재 손님들과 나눈 향기로운 추억들 속에서 인생의 지혜를 헤아려본다.



이불재 손님들과 나누는 행복 지혜

인간 내면서 건져올린 깊은 통찰

저자는 "나에게는 나를 후려치는 두 개의 죽비가 있다. 하나는 '집착하지 말라'는 죽비이고, 또 하나는 '걸림없이 살라'는 죽비이다. 미로 같은 불교 공부 40여 년 만에 얻은 두 개의 죽비이다."라고 책 속에서 고백한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집착 없이 살기 위해서는 나를 놓아버릴 때와 나를 들여다볼 때를 알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어느 때 '집착'을 버려야 하며 어느 때 '몰입'해야 하는지 불교적 사유로 빚어낸 저자의 삶의 지혜를 가만히 귀기울여보면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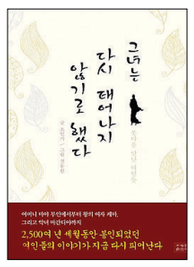
책속에 들어 있는 저자의 산중일기처럼 담담히 써내려간 삶의 단상과 낭만과 추억들, 그리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묻고 답하며 찾은 즉문즉답과 같은 사색의 언어들이 돋보인다. 그리고 집착을 버리고 자유자재하게 사는 인생은 무엇이며, 어디를 향해 가야 행복의 길이 있는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적어내려간 명상의 글들은 마치 산중수행자의 법문을 듣는 듯 하다. 바람처럼 막힘없이, 구름처럼 자유롭게, 때로는 송곳같이 예리한 통찰력으로 우리네 삶을 들여다보는 정찬주 작가의 단순명쾌한 식견이 진정한 행복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여운을 남긴다.

김주일 기자

붓다 가르침에 감화된 21명 여인의 일화 정리

그녀는 다시 태어나지 않기로 했다

조민기 지음 | 조계종출판사 펴냄 | 1만 6천원



여기 그녀들이 있다. 붓다와 인연 맺은 여인들은 실로 다양한 계층 사람이었다. 그들 중에는 당시 인도 국가의 왕비, 노예, 창녀도 있었다. 그들은 붓다의 가르침에 감화되거나 귀의해 붓다의 든든한 후원자나 제자가 됐다. 이들 중 대부분은 기구한 운명을 타고 났다. 전생의 업이 현생의 삶이 된 그들은 일가족을 모두 잃고 미쳐 버리기도 했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남편을 빼앗기기도 했다. 그래서일까? 책 제목서 연상하듯 붓다를 만난 여인들은 인연과 윤회의 끈을 끊고 완전한 열반에 든 붓다처럼 삶의 굴레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한편 붓다와 여성의 인연은 여성 출가자인 비구니나 여성 재가 불자인 우바이로 한정되지 않는다. 그중에는 그와 승가(僧伽)를 끊임없이 괴롭혀 온 여인도 있었고, 외도의 사주를 받아 붓다를 음해한 여인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삶을 산 21명 여인들의 일화를 한 권의 책에 담았다.

이 책의 저자 조민기는 불교계의 여러 매체에 붓다와 붓다 주변의 이야기를 꾸준히 연재하며, 톡톡 튀는 문장과 쉽고 재미있는 구성으로 독자들을 매료시켰다. 특히 이 책서는 '붓다를 만난 여인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경전과 관련 문헌 등의 내용을 집약해 각 인물의 스토리를 재구성, 현대적인 언어로 재탄생시킨다.

저자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스토리텔링이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불교 경전을 비롯한 불교 관련 도서에 대해 선입견을 가져온 독자들도 마치 한 편의 소설 혹은 동화를 읽듯 좀 더 가볍게, 더욱 가깝게 경전 속의 여인들과 붓다를 만날 수 있다. 이와 함께 단행본과 여러 매체의 삽화 작업을 활발히 하는 일러스트레이터 견동한 작가의 그림도 이 책의 매력 중 하나이다. 이야기의 결정적 장면을 포착해 정성스럽고 세심한 터치로 순간을 그려 낸 견동한 작가의 삽화는 독자들의 흥미와 상상력을 더욱 자극한다.

김주일 기자

잘하는 명상은 나의 운명을 바꾸어 줍니다

병이나, 괴로움, 번민 등은 모두 자연법칙을 위배하는데서 일어납니다.
명상을 통하여 모든 자연법칙들의 근원인 순수의식을 확립하면
마음과 몸은 자동적으로 단단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에너지의 흐름이 원활하여 생리계통이 바뀌게 되며, 그후 문제 없고
완전한 건강과 행복을 누리며, 빠르게 발전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 첫째주 (토요일) : 나를 귀하게 하는 명상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 둘째주 (토요일) : 자기 능력을 일깨우는 창조명상〈취업준비 직장인 및 상업인, 사업인 등〉
◆ 셋째주 (토요일) : 사랑을 얻는 행복명상 〈결혼, 이혼, 재혼을 앞둔 이들을 위하여〉
◆ 넷째주 (토요일) : 귀한 자녀를 얻는 태교명상
〈뇌세포의 70%는 엄마의 뱃속에서 만들어 지며, 스트레스는 태아의 뇌 크기를 줄인다〉

◆ 문 의 : 작은 마음선원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240번길 32
◆ 전 화 : 010-8673-7558 / 010-5658-2657 / 031-335-2568
◆ 매주 토요일 : 오전 11시 ~ 오후 5시

삶에 대하여 ...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자신을 키우고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 보세요.

붓다북
www.buddhabook.co.kr
불교. 종합. 쇼핑몰.



서울 성북구 보문로38길11 동일하이빌 B1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3번출구)
붓다북 02. 953. 7181.